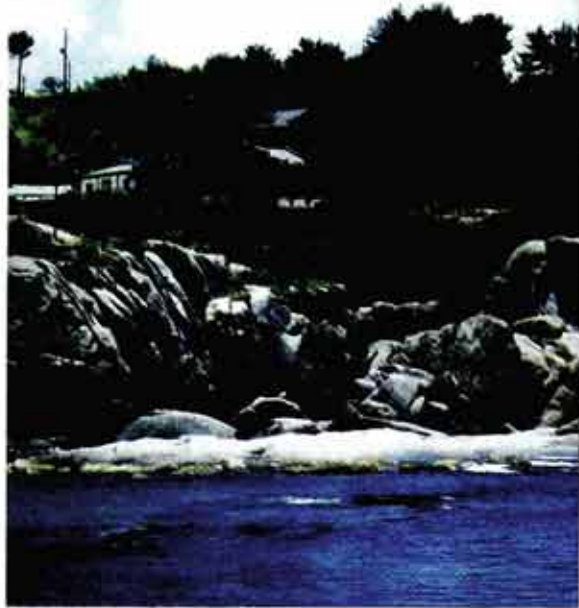


동해안 기도성지 / 천수관세음 기도도량 강원 양양 休休庵

중생의 염보, 세속의 번뇌망상을 씻어버리고



장수바위에서 바라본 휴휴암

강원도의 경포대를 지나 양양 가는 길목,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바다와 병풍처럼 펼쳐진 주변경관이 마치 새로운 세계가 곧 내 눈앞에 나타날 것 이라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 풍경에 젖어 들며 20분 정도 자동차를 달리다 한적한 도로변 물에 새겨진 휴휴암(休休庵)이란 이정표를 보는 순간, 그 놀라운 절경과 정말 잘 어우러진 볼도량을 발견하게 된다

산사(山寺) 바로 밑을 떠나치듯 장식하고있는 동해의 맑은 물과 바위들, 산세 수려한 곳에 청정도량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절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말이 끊어지

모시고있는 특이한 기도도량으로 양양군 광진리 1번지에 있으니 불법 번창 시작점의 역할을 인연 지고있으며 수행 승의 정진으로 일구어진 사찰인 만큼

들에게 스님은 서슴없이 빈방을 내어준다. 본시 부처님도량은 찾아 오는 이 그 누구도 불제자로서 휴식하고, 기도하고, 공부할 자격이 있는 공간이라는 말이다. 경포대에서 휴휴암으로 가는데 불과 20분 그 만남의 인연이 소요시간에 비교될까

말이 끊어진 그자리가 곧 安心處요 大自由

그자리 곧 안심처(安心處)의 대 자유를 보게 한다. 휴휴암은 바닷가에 인접한 사찰 중에서도 국내 유일의 천수관세음보살님을

마음의 고향에서 느껴볼 수 있는 아늑함이 존재한다. 여기에 주지 홍법스님의 넉넉함이 있어 휴식하거나 공부하러 오는 대중



천수관세음보살

『 10년 원력으로 일궈낸 천수관세음보살 기도도량 』

휴휴암은 한 스님의 10년 원력으로 세워진 자연 많은 사찰이다. 자연이 많은만큼 휴휴암 창건불사 중에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모시고 있는 묘적전은 이름만큼이나 묘한 일들 속에 불사가 진행되어 대중들 속에 이야기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속속들이 그 사연이 다 알려지지는 않았다.

사찰이 지어지기까지의 유래와 불가사의한 일들을 기록으로, 혹은 구전으로 전하고 있듯이 휴휴암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중들 속에서 이야기된 기이한 일들이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도 천수관세음보살님을 오늘날 유명 사찰의 창건 설화기

번뇌망상 선자리 한번더 쉬어야 그곳이 佛道

휴휴암은 한 스님의 원력과 수행 속에서 나온 이름이다. 휴휴암의 대웅전 역할을 하는 묘적전은 모든 업보, 번뇌 망상을 씻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묘한 성취가 이루어 진다 해서 묘적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러한 원 속에서 한번 더 쉬어야만 진정한 볼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휴휴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천수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묘한 이치, 묘한 법문, 묘한 신령력을 느끼게 된다. 즉 진정한 원을 세워 정진하면 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이다



묘적전

휴휴암의 묘적전은 우연치 않게 양양군 광진리 1번지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광진리에서 처음인 1번지에 절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불법이 이곳으로부터 계속해서 번창하라는 어떤 계시가 있는 느낌이다.

“작업에 치져잡든 꿈속에서 노스님, 젊은스님, 동자승 등 세상 스님들이 다모여 빨래하고, 떡감고...”

스님이 처음 이곳에 인연이 닿기는 매우 힘들었다. 3대 보궁 주지스님을 역임한 스님이 사찰터 볼 쉽게 결정할 수 없음을 당면했다. 수많은 곳을 보고 찾으려는 만행의 결과가 양양군 광진에까지 인연이 닿게 했던 것이다. 단지 동해의 넓은 바다와 주위 바위들의 기괴한 절경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곳이야말로 기도성지로서는 최상의 터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휴휴암의 불사가 시작된 것이다. 드디어 불사는 시작되었지만 막상 불사에 필요

한 재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많은 사찰의 주지스님을 역임하였지만 수중에 가진 불사금은 몇푼 안 되었고 막연히 기다릴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스님이 10여 년 전 세우신 원력의 힘으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차츰 스님이 기도하며 불사한다는 사실을 안 신도들의 불사 동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각계각층의 많은 대중들이 어떻게 알고 불사에 동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스님은 당시의 일을 털어 놓는다.

묘적전의 절간식을 3일 앞두고 단청 작업은 끝났지만 서둘러 마무리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법회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법당 마루 경단작업이 시급했고 이 일이 큰 화근으로 다가왔다. 마루를 평평하게 깔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먼지가 방금 끝낸 단청 및 기둥 심지어 천수관세음보살상에까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법당 안이 정말로 먼지 천지가 되버린 것이다.

스님은 진공청소기 및 걸레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먼지 제거에 나섰으나 먼지는 그대로였고, 나오는 것은 한순간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었다. 밤늦도록 먼지 제거작업에 치진 스님은 그대로 법당 안에서 잠이 들고 말았는데 꿈속에서 노스님, 젊은 스님, 동자승 등 세상 스님들이 다모여 빨래하고, 떡감고, 아미법석이 나 있어 스님은 이게 웬 일인가 하고 쳐다보다 잠이 잤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법당안에 있어야 할 먼지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깨끗한 법당이 되어있길 않겠나, 스님도 믿을 수 없어 기둥을 문질러 보고, 단청도 만져 보았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엄청난 현실이었다. 순간 스님은 ‘이것이야말로 천수관세음보살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감동하고, 고맙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심이 났다고 한다.



전경바다

창건시주의 집에는 공덕의 정후가..

이러한 상서로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묘적전 복장의식이 있는 날이었다. 복장의식을 모두 마쳤을 때 난데없이 급한 전화가 왔다. 신도가 경영하는 호텔에 산돼지가 새끼를 거느리고 대형유리를 깨고 들어와 피를 흘리며 곳곳을 돌아다니다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강릉 시내에 난데없이 산돼지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상스럽게 생각되었는지 무슨 불길한 일이 아닌가 하고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여의주바위

이 이야기들은 스님은 ‘정말 복이 굴러들어왔군요’ 하면서 밤을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 준다. “꿈속에서 돼지를 보아도 복 받는다고 풍아 하는데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그냥 돼지도 아닌 산돼지를 보았으니 좋은 일이고, 더구나 새끼까지 데리고 들어 왔으니 앞으로 꽤나 번창하겠네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왔다 갔다는 증표로 남긴 것이니 불길한 일이 아니니 괜찮아요. 왜냐 하면 유리만 깨지고 말았다면 누가 믿겠어요” 실제로 이 일은 강릉지방에서도 방송으로 대서특필된 내용이었다.

알고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묘적전 복장물을 모두 시주한 여신도였다. 묘한 일은 다른 곳에 산돼지들이 들어가지 않고 유일하게 휴휴암 여신도가 있는 곳에만 들어왔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여신도의 신심에 감동한 휴휴암 천수관세음 보살님이 화현하여 현신하신 것이라고 당시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밖에도 행화를 그리던 거사가 행화작업이 끝난 날 꿈속에서 백의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일 등 불사중에 묘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처럼 휴휴암은 원을 세우고 일심 정진하는 대중들에게 좋은 기도처로서 훌륭한 사찰임을 여러 가지 체험과 기이한 일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가족과 함께 휴양하는 휴휴암

휴휴암의 명소는 장수바위와 휴휴정(황토방으로 만든 선실) 등이 있다. 창건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스님의 수행정진으로 일구어진 사찰인 만큼 사골방에서 느껴지는 아늑함이 있다.



휴휴당(황토집)

휴휴암 바로 밑은 동해의 맑은 물과 바위들로 장식되어 있고, 특히 사찰에서 바위 들을 바라보면 큰 거북 모양을 한 바위(일명 장수바위)가 떡 버티고 서 있어 방문한 이들의 마음을 청정케 한다.



장수바위(거북바위)

또한 주위의 암석들은 큰 거북을 호위하듯 위하듯 새끼 거북 모양을 한 바위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마치 거북 가족이 무엇을 찾으러 가는 듯한 느낌에 사로 잡힌다.

그러면 왜 큰 거북바위가 장수바위로 불리을까? 사연은 다음과 같다. 비오는 날 바다의 소금기 있는 물로 씻기우고,

맑은 날에는 태양빛이 큰 거북 바위 등에 열을 가한다. 큰 거북들은 마치 발바닥 지압에 알맞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고 태양열에 의한 발열 효과로 인하여 거북 등은 데워진다.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다면 자 신도 모르는 자연적인 발 지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점은 장수바위 위에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지만 이러한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장수바위는 약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방생지로서도 최적인 요건을 제공하기도 한다

경포대에 서 휴휴암에 올 때 걸리는 시간은 불과 20여분의 거리다. 이제는 휴휴암이 기도처로, 휴식 공간으로, 참선장으로 대중들에게 진정으로 다가서는 사찰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주지스님은 말씀하신다.

“신심을 가지고 원을 세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실천한다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휴휴암 주지 홍법스님

홍법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강원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커서 큰 절의 주지스님이 되겠다고 남다른 원을 세웠다.

이때부터 스님은 도량청정의 수행에 정진한다. “눈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청정하게 하는 생활”이 홍법스님의 화두요, 수행이었다. 다른 사찰을 방문하는 날에도 스님에게는 도량청정의 공부였다. 주위에 널려있는 쓰레기 등을 모아 정리하면서 이러한 훌륭한 도량에 보내주시 부처님이 너무도 고맙고

환희심이 났다고 한다.

계속되는 만행 속에서 드디어 어릴적 원이었던 주지몽상이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주지스님을 맡기에는 어린 법랍이었다. 그러나 도량청정의 수행 속에 서일구어 온 스님의 부지런함은 사찰을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사찰이 날로 번창해 감에 따라 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홍법스님의 화두요 수행이다.

님은 여러곳의 주지를 역임하게 되었고 특히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에서 보궁을 참배하면서 직접 공양을 올리고 기도 정진한 생활은 잊을 수가 없고 이러한 도량에 보내주시 부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 스님은 다른 곳의 주지 임명이 되면, 소리없이 임명 3일 전에 그곳 사찰에 찾아가 기도를 하곤 했다. 스님 나름대로의 부처님께 인가받는 한 방편이었다.

“부처님께서 이 절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3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게 해 주십시오” 이처럼 홍법스님은 항상 지내에 만행을 해서 전(前) 사찰의 원망 아닌 원망을 들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스님의 신심과 무소유 생활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어린 강원시절 집에 갈 기회가 있어 어머니를 찾아보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사

방에 큰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모습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었다고 한다. 홍법스님이 수행 중 잊혀지지 않는 곳은 상원사 생활이었다. 배낭을 메고 부처님께 마지막공양을 올리는 생활을 할 적에는 마치 행자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휴휴암 기도처 안내

주소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전화번호 : 0396-671-0525, 671-0093
011-375-9147

